

국제 정세가 국익을 경쟁하는 시대로 북한 등은 극단적인 특이 사례를 보여

북한이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였고, 일본인을 납치한데 대하여 억지만을 쓰는 자세로 최근의 국제 정세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지, 김정일 정권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세에 일본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억지를 쓰는 김정일 정권의 제재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 중에는 제재에 대하여 소극적인 나라도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21세기의 국제 정치의 특징은 20세기에는 주로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결하던 것과 달리, 자원, 핵, 인권, 종교를 둘러싼 주도권 획득 경쟁이 국제 정치에 강하게 비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2차 대전 후에 태어난 일본 사람의 대부분은 국경이나 영해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일본을 상징하는 일장기를 경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코즈모폴리탄(cosmopolitan) 같은 생각은 이상적일지 몰라도, 지금의 국제 정세는 국경·영해를 초월한 코즈모폴리탄 같은 사고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일본이 심각한 사태로 물리게 되는 것은 자원 획득을 둘러싼 국제적인 다툼 때문일 것이다. 그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대외 정치·경제 활동에서 뒤떨어지거나, 잘못 판단하면, 자원 획득을 둘러싼 뜨거운 전쟁에 말려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60여년간 일본은 평화 주의로 일관해 왔다. 그와 같이 평화로 둘러싸인 일본을 독재국인 북한이 미사일로 협박하는 시대가 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는 뉴스나, 지난 6월 15일에 중국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랑 6개국이 모여 상하이 협력 기구를 만든 것은 앞으로의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왜 그들은 상하이 협력 기구를 만들었을까? 석유·천연 가스가 나오는 중앙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측의 견해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상하이 협력 기구에 몽골, 인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이 가맹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뺀 나라들이 정식 멤버가 될 것 같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유럽 측은 구소련 지구의 석유를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고 파이프 라인(pipe line)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돌아가는 상황도 주목하여야 할 문제가 된다.

이제부터 일본인은 21세기의 세계 정치·경제를 1980년대까지와 같은 미국·서독·일본을 3개국으로 하여 돌아가는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세계의 판도가 크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